

# 8년 준비에도 못 잡는 北 무인기...국민 '불안'

### 2014년 이후 北 무인기 대비...레이더 성능 개선했지만 허점 여전 '북한 드론 격추 자신있다'던 합참·공군...서울 뚫려 얼굴에 먹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마을 지역까지 남하한 데 이어, 서울 상공까지 접근해 7시간 가량 누볐다.

군은 지난 2014년 북한의 무인기가 처음 발견된 이후 8년 동안 무인기 대응을 위해 준비했지만 정작 격추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과 여야는 군의 대응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비판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25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수 개를 포착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최초 미상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DM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항적 추적 및 공군전투기, 공격헬기 등의 격추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

전날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는 총 5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4대는 강화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서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최초 식별된 무인기 1대는 3시간가량 비행 후 MDL 이북으로 이

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4대는 오후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 소실 때, 총 5시간 여 작전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인근으로 근접한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의 예기봉과 파주의 오두산전망대 사이를 통과해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 해당 무인기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으며 총길이 약 2m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형태는 지난 2014년, 2017년 발견됐던 것과 비슷한 글라이더형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 영토를 침범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의 골프장 등의 사진이 발견된 바 있다.

2017년 이전에도 북한의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됐다. 북한의 무인기는 대부분 하늘색으로 위장했으며, 동체 내부에는 일본산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부터다. 당시 군은 북한의 무인기를 발견한 이후 저고도 탐지 레이더, 신형 대공포 개발, 전파 교란 무기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남하 때도 신형 레이더 덕분에 군사분계선 이북부터 무인기 탐지가 가능했다. 다만 한국으로 넘어온 무인기를 격추하지는 못해 대공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류성영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인기 발견 이후 레이더 성능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라며 "덕분에 초소형 드론을 군사분계선 이북부터 잡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 연구위원은 "다만 서울 영공까지 침범했음에도 격추하지 못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다.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허를 찔린 것도 맞고, 대응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합참과 공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그동안 '북한 드론 격파'를 자신했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영공까지 침범한 만큼 대응책이 미비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정상회담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드론(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대공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소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 보강 등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

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지난 16일 육군 제5군단 사령부와 방공전지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점검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현대전에서 드론과 무인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북한의 무인기 위협도 고도화되고 있다. 적 무인기 도발 시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도 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드론 5기에 서울 영공이 뚫린 만큼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8년 전에도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 군 역시 질타받아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했다.

그는 "군은 정오께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이같은 사실을 곧바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군 당국은 국민의 불안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인가. 6시간이 넘도록 북한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강진소방, 성탄절 및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현장행정지도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많은 인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관서장 현장방문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소방, 연말연시 화재취약대상 지도방문

담양소방서(서장 박성래)는 연말연시를 앞둔 지난 21일, 관내 화재취약대상인 육과시장, 무등산산태오양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에 나섰다.

담양=박종영기자



완도소방, 연말연시 대비 피난약자시설 등 현장 안전점검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연말연시와 해맞이 축제 등을 맞아 완도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와 해맞이 축제를 보내기 위해 완도 관내에 있는 피난약자 시설 등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 소방안전 캠페인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에서 소방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장 마련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2022년을 마무리하며 지역민과 함께 예술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등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김재환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온택트(Ontace) 기업간담회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연말을 맞아 제대군인 취업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취업유관기관과 기업을 초청하여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선욱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향년 93세 별세

###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 남아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이 할머니의 사망으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10명만 남았다. 이중 3분은 나눔의집에 머물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전날 오후 병세 악화로 성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했다. 사인은 급성폐렴에 의한 패혈증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등록상 1930년인 이 할머니

의 실제 태어난 해는1928년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1942년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중국에서 2년 넘게 위안부 생활을 했다.

8.15 해방이후 조국에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숙련 자락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지난 2009년 4월에는 2000만원을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보은과 나눔의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이 할머니는 2018년 이후 나눔의집에 정착해 생활해 왔다.

서선욱기자

##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피의자 구속 "해당지역 수년간 거주 운수회사 대표"

### 사고 낸 운전자, 피해자 확인 않고 운행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적용

검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A(3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송치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했다가 범를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도주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블랙박스 녹음된 A씨 음성을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 목격자들 진술을 기초로 사고 전후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몰아 B군이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지역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이 같은 사고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도주치사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최이슬기자



매주 열리는 풍경

27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일농원에서 직원들이 수령주령 매달려 차분하게 맛을 품어가고 있는 매주를 살펴보고 있다.